

길가에 주저앉아 잠시 펼치는 책

1 방랑자의 책읽기

정진국
미술평론가



파리 세느강변에서.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책은 목마른 영혼을 채워준다.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한 나머지 모험과 낭만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일까. 관광이라는 그럴싸한 모험 말고도 진짜 유럽 대륙을 방랑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지금이다. 극동아시아의 짧은 배낭족들과도 대비되고, 그렇다고 종교적 순례의 전통을 따르고자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거나 내전중인 동유럽 국가들에서 흘러나온 유랑민들이다.

그들이 자신해서 고행을 등진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나야 했기에 떠도는 것인지, 그 세계하고 애뜻하게 마련인 사연을 알 길은 없다. 속 시원하고 후련하게 고행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한

번 고행을 떠나면 몸은 그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언정 마음은 영영 그리할 수 없다고 했던 어떤 시인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허전한 손을 달래주는 책

귀퉁한 고풍내가 젖내음처럼이나 푸근하게 느껴질 만큼 습한 북유럽의 도시들에서 날씨가 쾌청은 날이면 길바닥에서 죽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다반사이다.

서로 부둥켜 안을 연인이 있거나 재롱과 안달로 곁을 맴도는 강아지라도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의 허전한 손을 달래주는 것은 보통 한 권의 책이다. 체크제 배낭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는 이

아저씨도 그 행색으로 미루어 신바람나는 배낭족만은 아닐 듯싶다.

이들의 독서는 어떤 것일까.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달달 외워가며 악착같이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 이따금씩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해야 하는가 하면 행인들이 자신들에게 던지는 추파도 스쳐보내야 한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없더라도, 고문 당하는 사람에게는 몇 만배로 부풀려져 다가오는 시간처럼, 그토록 잘 가지 않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선뜻 넘어가지 않는 하루 해를 어서 저 서편의 건물 옥상 너머로 넘겨보내기 위해서 책에 몰입하는 것일까? 혹은 이래저래 오가는 시간을 잡지도 놓지도 못하며,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리저리 쏘다니는 행락객들이 배꼽 위에 카메라를 걸치는 대신, 이렇게 거리에 죽치는 방랑자들은 그 위에 책을 얹어 놓는다. 읽다가 지루하거나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한다면 얼굴을 덮는 가리개로 쓰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책은 이들이 길 거리를 단순히 배회하는 걸인들이나 행려병자와는 다름을 말하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그들이 비록 고급 호텔에 들어갈 여유가 없을 망정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나그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은 책자의 숭배

독서란 이처럼, 발버둥치는 법이 없는 구원의 몸짓이다. 모국을, 제나라의 땅을 잃은 사람들이 경전을 품에 안고서 모국을 간직하던 오랜 전통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 작은 책자의 숭배를 통해, 거룩함을 나뉘므로써 공동체 의식을 확인해왔던 관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성경과 코란이 아니라 싸구려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모국어로 씌어진 것은, 돌아갈 곳이 없건 없건, 또 다시 돌아가고 싶건 말건, 내가 하나의 신화와 동포와 고향과 추억을 지니고 사는 인간임을 확인시켜 준다. 당장 눈앞의 외계가, 가혹한 환경이 그들을 무심하게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혹은 우리에게는 또다른 세계, 그들을 아는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고유한 세계가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조국을, 하나의 신성한 대륙을 헤맬 수 있었을까. 과나리붓집 속에 또다른 자기의 세계를 구겨넣고 다녔던 그 자부심만이 그들의 방랑을 지켜주는 불빛이었던 것은 아닐까. 가장 통속적인 주인공의 시시껄렁한 대화조차도 시시때때로 신성한 빛을 발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우리 세상'이 있음을 거역하지 말라는 지상의 명령을 내려주는 중인지도 모른다. 너절하고 진부한 것을 숭고한 것으로 변신시키는 독서의 마술이다.

우리가 간직할 책은

한국사람들이 어지간히도 책을 읽지 않는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은 출판업자들만은 아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 신문물에 대한 열광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때마다 격변의 시대였던 시절을 살면서 고향을 떠날 때, 우리의 선조들이 유민이 되어 이 대륙 저 대양을 헤맬 때, 우리에게 함께 간직할, 고향을 대신할 이렇다 할 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동일한 신화와 신념을 나누어 갖는 방법이 반드시 책자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들이 목에 걸고 다니던 금분으로 썩어진 소중한 경전 같은 것이 우리 민중에게는 없었다. 족보나 땅문서와 같은 것, 그토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대한 숭배가 우리의 신화를 밀어내버렸기 때문일까.

우리들에게는 기독교들이나 회교도들과는 달리 '단군'이나 '조상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제들이 없었다. 그런 말씀의 위력을 흠치고자 했던 카타피나 마오쩌둥의 《그린 북》이나 《레드 북》같은 책자들도 없었다. '홍익(弘益)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말씀이 거추장스러웠거나 아예 쓸모없는 것이었기 때문일까.

그렇다고 주말에 성경책을 허리춤에 끼고 돌아다니는 기독교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도 책을 아끼는 독서의 왕국을 건설할 날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절에 가는 사람들이 염주는 꿰차더라도 불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신심

수수께끼같은 문화풀이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를 읽고

임재해 · 안동대 교수

은 매개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정 영적이
며, 모든 사람들이 성스런 가르침을 줄줄
외우고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나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해의 여행길에 오르면서
어떤 책을 보파리에 끼워넣을지가 궁금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행안내 책자처럼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자존
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것 같지는 않다. 그
것은 모양만 책이지 그 기능은 작은 전자
계산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가 허튼 것이어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
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책이,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행길에
누가 《삼국유사》를, 《한국사 개론》을 들고
갈 텐가. 어떤 소설이, 어떤 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른 사이에 떠나온 내 나
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부추해줄까.

영혼을 제자리로 돌리는 휴식

아주 먼 여로에서 모국어로 씌어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시 없는 안도
감을 전해준다. 방랑자들은 뺨 한 조각, 물
한병과 함께 책이 들어 있지 않은 배낭을
메고서는 숨을 돌리지 못한다. 그들의 육신
은, 아주 멀리 떠나온 그곳에서 각자의 영
혼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보낸 뒤에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지탄받기도 하는 영육
(靈肉)의 이분법이다. 하지만 그 육신을 무
시할 수 있을 때에만, 현실의 조건에 눈감을
수 있을 때에만 원기를 회복하는 육신이다.

우리가 낯선 객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
경찰서나 대사관으로 달려가거나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들며 허둥대는 대신, 길가에 주
저앉아 잠시 펼칠 수 있는 책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 만사 제치고 심기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말이다. ❖

새 연재 <책 읽는 사람>

사진 이미지는 순간의 기억을 전한다. 더구나
술한 상상의 길을 담은 책의 이미지는 시선 너머
먼곳으로 생각을 확장시킨다. 이번호부터 정진국
씨의 <책 읽는 사람> 시리즈 연재를 시작한다. 세
계 여러 곳에서 만난 '책 읽는 사람'의 갖가지 모
습은 단지 카메라에 포착된 이상의 이미지와 상
상을 불러일으킨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한마디로 주장현은 수수께끼같은 인물이다.
어디서 그와 같은 기발한 착상과 끊임
없는 저작이 실타래처럼 이어지며, 학회를
꾸려내고 연구물들을 묶어내는 학문적 조직
력이 죽순처럼 솟구쳐 오르는지 알 수 없다.
'민족굿'을 표방하며 굿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틀지어 놓은 문제인식의 참신성과, '역
사민속학회'를 꾸려내고 이끌어가는 조직
가로서의 역량, 제주도에서 서산까지 또는
진도에서 강릉까지 한반도를 두루 누비는
현장연구자로서 부지런함, 굿연구에서 시
작하여 북한 민속 및 미륵 연구를 거쳐 두
레연구에 이르는 한량없는 연구의 폭, 민속
학 연구사의 빈 자리를 찾아 저서 차원의
연구로 매워가는 순발력 넘치는 저술역량
등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은 것이 없으니,
수수께끼같은 인물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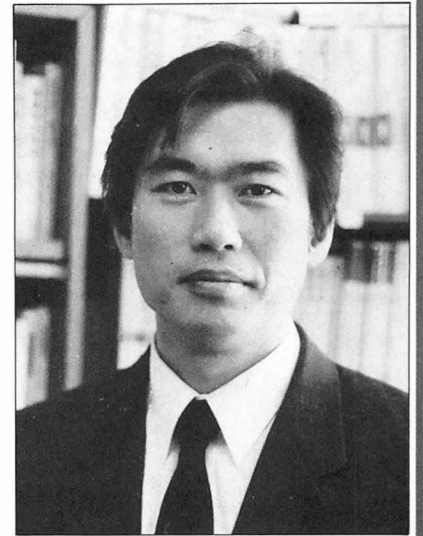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는 저자 주장현의
수수께끼같은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난 저작
이다. 나는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
끼》를 읽고 그 논술의 정확성이나 논리의
정연성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식이 흥미로워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주장
현이 나의 꿈을 깨뜨리고 말았다. 감히 엄
두도 내지 못할 문제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술술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문화이해에 대한 문제제기의 발
상이 같을 뿐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또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두
사람은 한결같이 기존 학계에서 드리워 놓
은 문화연구의 금줄을 걷어부치고 베일 속
에 가려져 있던 문화적 전통의 비밀을 명쾌
하게 밝혀내는 작업을 한 셈이다.

그러나 주장현의 수수께끼를 푸는 방식은
마빈 해리스와 몇가지 점에서 다른 까닭에
더욱 주목된다. 마빈 해리스는 특정 민족문
화의 결과론적 현상을 마치 문화발생의 원
인론인 것처럼 환원해 놓고서 만족하는데
비하여, 주장현은 문화의 역사적 뿌리를 추
적하되 과거 속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서 발을 딛고 사는 현실 문
제로 연결시키고 있다.

해리스가 대상의 바깥에서 서서 인도를 비
롯한 몇몇 종족문화의 특이성을 유물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 옹호하며 정체론적
논의에 머무르는 데 비하여, 주장현은 대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외래문화의 침투를
맞받아 버틸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는
동시에 문화적 전통의 창조적 발전 가능성
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해리스가 바깥에서 걸돌며 원인론
적 추적과 정체론적 문화 옹호에 집착했다



임재해 교수.

면, 주장현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역사적
연원의 해명을 통해 현재의 의미를 되살리
며 문화의 역동적 힘을 주목하고 있는 차이
를 보인다.

그 결과 마빈 해리스의 문화론이 인도 사
람들의 암소 숭배를 그 자체로 합리화하는
데에 머물고 말았지만, 주장현의 문화론은
독 속에 빛어둔 식혜의 전통을 강동 속에
담아서 우리 시대 새로운 음료문화로 거듭
태어날 것을 촉구하는 현실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개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라는 브리
지트 바르도의 시건방진 주장에 대하여 동
물보호 논리의 모순과 식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강력한 반론을 편다. 일종의 식문화
논쟁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식습관을 정당
화하는 한편 제국주의자들의 자문화 우월주
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예사 사람들은 문화
국민으로서 긍지를 세삼스레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우쭐거리게 될 것이며,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은 전통문화를 오늘에 맞
게 창조적으로 되살리는 기발한 착상들로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
리 문화의 수수께끼》는 행복한 책읽기에 머
무르지 않고 창조적 삶읽기에 눈을 뜨게 하
는 한편, 현장감 넘치는 사진을 통해 우리
문화 공부의 신바람과 쏠쏠한 재미를 한층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주장현 지음
한겨레신문사/A5신/292면/6500원

